

광주 구청장 선거 대진표 윤곽

민주 남구 제외 4곳 경선 후보 확정

평화당 동·서·북·광산구 후보 공천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 후보가 확정되고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이 이성일 서구청장 후보 등 광주 4개 지역 구청장 후보를 확정하는 등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경선 후보 심사 결과 동구는 강수훈·강신기·양해령·임택 예비후보가 뽑혔으며, 서구는 김보현·김영남·서대석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올랐다.

북구는 문상필·문인·조오섭 예비후보가, 광산구는 김영록·윤남실·윤봉근 예비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반면, 남구는 중앙당 요청에 의한 보류지역으로 지정돼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했으며 3·4위 후보 간 배점이 근소한 경우 4인 경선을 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다음달 3~4일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ARS투표 50%와 안심번호국민ARS투표 50%를 반영해 실시한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남구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중앙당 결정이 내려지면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이날 이성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서구청장 후보로 공천하고, 동구 김성환 동구청장, 북구 이은방 광주시의회위원장, 광산구 이정현 광주시의회위원 등 광주 4개 지역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평화당 광주시당은 지난 21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제4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성일 서구청장 등 6·13 지방선거 후보자 15명과 최종 경선 후보자 15명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도 더욱 뜨겁게 진행될 전망이다.

동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정지인, 관료 출신, 여성, 청년인 임택·강신기·양해령·강수훈 후보 간 4파전을 벌이고 있고, 평화당은 현역 김성환 구청장



‘아시아푸드 페스티벌’ 축하 퍼포먼스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 시청 일원에서 열린 ‘아시아푸드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 동구청 제공>

이 나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영우 전 시의원이 출정 준비를 갖추고 있어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 간 3자 대결이 유력시된다.

서구는 광역의원 출신인 김보현·김영남 후보, 서대석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민주당 경선에 올랐고, 이에 맞서 평화당에서는 이성일 전 보좌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공천이 배제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남구에서는 김병내 전 평화대 행정관과 임형진 전 광주신보 이사장,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 본부장, 최진 민주당 동남갑위원장 등이 경합 중인데 컷오프 보류 지역으로 분류돼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다. 김귀봉 전 전남대 총동창회 상임이사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송광운 청장의 3선 연임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는 민주당의 경우 단일화에 나선 문상필·조오섭 전 시의원과 이에 맞서는 문인 전 행정부시장 간 3파전 양상이다. 또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지낸 이은방 후보가 민주당 당기발을 들고 출전에 민주당 후보와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김영록 광주세무사회 회장과 윤남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윤봉근 전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경선 3파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평화당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도심 공중케이블 정비

전남대 정문·송정초 주변 등 19곳

광주시는 동명동 주민센터, 전남대 정문, 송정초교 주변 등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19개 구역의 도심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월드컵경기장과 U대 회 선수촌 주변, 구시가지, 전통신장 주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왔다.

올해 공중선 정비대상은 한전주와 통신주 3219본, 케이블 331km로 오는 5월부터 사업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주에서 건물, 주택으로 이어진 복잡한 통신선과 전력선 정리, 끊기거나 늘어선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65억원이며, 한전과 통신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거미줄처럼 난립해있던 공중케이블이 정비돼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선 정비 문의는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또는 공중선민원콜센터(1588-2498),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에 하면 된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시내에 늘어져 있거나 얽혀있는 전기통신선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한전과 통신사별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나경채 “진보-보수 제대로 된 정책대결 돼야”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지난 21일 노회찬 원내대표와 윤소하·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당원과 지역 주민 등 지지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남 끝난 민주당 내부 경

선과 관련, “지금이야말로 광주시장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제대로 된 정책대결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광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용섭 후보의 기업우선 경제 공약은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경제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걱정스럽다”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

이정선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희망”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인 통일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내용은 ▲학교별 자율적인 평화 통일 교육 권장 및 교육청의 지원 ▲평화통일 학생 동아리 활성화 및 지원 강화 ▲비무장지대(DMZ)캠프 추진 ▲평화통일 토론대회 개최 등이다.

앞서 이 후보는 최근 학생 해외체험프로그램인 ‘무등글로벌프론티어’ 정책을 발표하며 “대륙을 꿈꾸는 ‘고구려 열차’와 평화로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성열차’ 운영을 통해 청소년 평화통일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석규 “특수교육 대상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장애인(4월 20일)에 즈음해 “전남특수교육원 설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후보는 전남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 ▲1개 특수교육원 설립 ▲6개 권역별 전환교육 거점센터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6개 권역별 거점센터의 경우 전남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눠 설립하고 중점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기관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인성 ‘살아있는 교육, 의미있는 학교’ 비전 제시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살아 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전남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살아있는 교육’은 학생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못 참고, 호기심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다시 도전하는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분절적이고 분과적인 교과 개념을 넘어 지식의 관계성을

확장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찾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의미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 맞추는 학교로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하고, 교육 활동에서 상처 입은 교직원의 심리치유와 법률지원도 병행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는대로 비전을 실행할 전략과 공약, 과제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2018
전라남도
방문의승거
2018 Visit Jeollado, Korea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보다
전라도천년